

복합환승센터 개발해야 주차난 해소된다



인프라 부족 대책

광주 송정역 복합환승센터 개발 사업이 3년째 결실을 보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사업 예정업체와 코레일 간 부지 문제가 타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시행에 따른 '재산개발수익금과 임대료를 원칙대로 징수할 수 밖에 없다'는 코레일측과 '이를 받아들이면 사업성이 낮아진다'는 업체측의 판단이 작용하고 있다. 결국 광주시는 물론 지역정착권이 모두 나서야 풀릴 수 있는 문제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29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 송정역 복합환승센터 개발 사업은 2010년 12월 국토교통부의 시범사업에 선정돼, 2014년 착공, 2017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됐다. 하지만, 부지 문제가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사업 추진은 발이 묶여 있다.

그동안 복합환승센터 부지를 소유한 코레일은 사업 시행예정자의 '부지 수익매각 또는 임대' 요구에 부정적이었으나, 최근 업무용 부지로서 매각은 불가능하지만 조건부 임대는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전환했다.

꼭질 끝에 사업시행 예정자와 코레일 측이 부지 임대를 놓고 협의를 진행 중이지만, 협의가 순탄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코레일 측은 30년 장기 임대 이후 기부채납, 임대료 이외에 이익금의 10%를 요구한다. 공사기간 중 송정역 주차장 대체부지 확보 등의 임대 조건을 제시했다. 코레일이 시행한 13개 사업과정에서도 자산관리규정에 따라 이같은 조건은 동일하기 때문에 사업조건 변경은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시행 예정자 측은 현재 코레일 측의 요구를 검토 중이지만 '임대조건을 수용하면 수익성이 떨어진다'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 송정역 복합환승센터 개발 사업이 주목받는 또다른 이유는 송정역 주차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29일 광주 송정역에서 탑승객들이 서울로 향하는 KTX에 줄지어 올라서고 있다. 하루 평균 이용객이 1만3000명을 웃도는 송정역은 주차장, 화장실 부족 등 불편 사항이 개통 1주년을 앞둔 현재까지 개선되지 않아 이용객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복합환승센터

코레일-업체 부지 이전 여전

광주시·정지권 해결 나서야

400대를 주차할 수 있는 현 주차장은 KTX 개통 이후 몰려드는 차량 때문에 매일 주차대란이 빚어지고 있다. 만약 광주 송정역 복합환승센터 개발 사업이 시행되면 이 문제는 자연스럽게 풀린다. 이 계획에는 환승센터 지하에 1600대를 주차하는 계획이 포함돼 있다.

시는 현재로서는 주차장을 증설할 계획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복합환승센터가 조성되면 주차장 문제가 해결되는 데다 주차장 조성은 시에서 나설 일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코레일이 그동안 부산역과 대전역사를 증축해 주차장을 확충했다는 점도 작용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KTX 이용객들을 위해 주차장 등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엄밀

광주역 활용 방안

부지 매입에만 1200억 들어

광주시, 활성화 방향도 못잡아

히 말하면 코레일 등의 업무"라고 선을 그었다. 현재로서는 복합환승센터 조성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말이기도 하다.

호남고속철도 개통으로 더 이상 KTX가 다니지 않는 광주역 일대의 '도심 공동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지만 광주시는 아직 광주역 사후 활용에 대한 방향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사실 광주역 활성화는 본질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게 광주시의 판단이다. 현재 광주역 일대 20만㎡ 부지의 소유가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으로 돼 있다는 게 첫째다. 이는 사업을 시가 주체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이 부지의 매입에 대략 12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는 데다 광주역사 이전부지 등을 제공

해야 하는 데도 버금가는 비용이 든다. 구입 후 광주시가 개발해야 하는 것도 큰 짐이다.

실제 광주시는 지난 1992년 옛 도심철도를 폐쇄하고 푸른길을 조성하는 데 1200억원의 비용을 들였다. 이런 사정을 감안해 광주시는 역의 기능을 보장하거나 되살리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광주시가 광주역 활성화와 민간합동회의를 열고 광주역을 존치하되 철도기능의 증대방안을 포함한 용역을 발주한 이유다. 이와 별도로 시는 광주역 주변상권을 되살리기 위해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건철 동산대 관광경영학과 교수는 "이미 수년째 표류하고 있는 송정역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을 코레일과 사업자측에 미루기 보다는 광주시는 물론 정지권이 나서야 할 때"라며 "충선 공약에 이를 포함시켜 정지권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남광주야시장 6월 개장 안한다 먹거리 특화 시장으로 차별화”

대인야시장과 다른 콘셉트로 운영계획 마련키로

광주시가 애초 6월 목표로 준비하던 남광주야시장 개장을 늦추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28일 오후 광주시청 집무실에서 열린 '남광주야시장 콘셉트 설정 전문가회의'에서 "남광주야시장 개장 시기를 특정할 필요가 없다. 동구청의 용역 결과와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콘셉트를 결정하자"고 말했다.

광주시가 남광주야시장 개장 시기를 늦추기로 한 것은 2km 이내에 위치한 대인야시장과 상권이 겹친다는 우려를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문화장관회의 개최일인 6월 22일 이전에 남광주야시장의 문을 열어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연계해 광주의 관광상품을 대내외적으로 알리려던 당초의 계획은 이로써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광주시는 기존 대인야시장을 소상공인 중심으로 육성하고, 남광주야시장은 먹거리 특화 야시장으로 차별화할 방침이다.

전문가 회의에 참석한 전교필 대인예

술야시장 감독은 대인시장을 야시장으로 탈바꿈한 경험을 살려 남광주야시장의 기본콘셉트를 구성한다.

전 감독은 "야시장 운영주체에 민간 전문가를 배치하고, 먹거리 장터의 음식 재료는 남광주야시장에서 구입해 상인회와의 공존을 모색해야 한다"며 "남광주야시장 주변 광장주차장과 푸른길 공원에 시민 휴식 공간을 조성하자"고 제안했다.

박유복 인스나인 대표는 "지역예술가들과 연계해 독특한 매체 디자인을 만들고, 계절별 음식개발 전문가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신겸 전남대 교수는 "스타 요리사와의 상담을 진행해 남광주야시장만의 특화음식 개발에 나서야 한다"며 비일적인 매대 디자인과 아시아 각국의 특장이 드러나는 조명 설치 등을 제안했다.

광주시는 오는 4월 11일 제3차 전문가 회의를 진행, 남광주야시장 추진 계획을 더욱 구체화할 예정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시 산하 공기업·출연기관 연봉킹은?

광주전남연구원장 1억4040만원

21명 중 성과급 포함 8천만원 이상이 18명

광주시 산하 공기업과 출연기관 중 연봉 최고액 기관장은 광주전남연구원장으로 조사됐다.

29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 산하 공공기관 임원 연봉(2015년말 기준)을 집계한 결과 지난해 시도 통합 연구원으로 출범한 박성수 광주전남연구원장 연봉이 1억404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 1월에 취임한 박 원장 연봉은 계약금 1억4040만원, 성과급 1000만원의 최대 200%까지 받을 수 있다.

박양우 광주비엔날레 대표이사가 1억2600만원으로 다음을 이었으며 정석주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성과급 포함 1억6000만원을 받았다. 신환섭 김대중컨벤션센터 사장이 성과급(1460만원) 포함 1억5000만원, 조용준 광주도시공사 사장은 1억1000만원(성과급 1700만원)이었다.

지난해 3월 취임한 배정찬 광주테크노파크 원장 연봉액은 1억3000만원이었다.

공기업과 출연기관장 21명 중 성과급 포함해 8000만원을 넘긴 기관장은 18명(85.7%)에 달했다.

경제고용진흥원(7080만원), 과학기술교류센터(6700만원), 국제기후환경센터(7600만원) 등 3명만이 8000만원에 못미쳤다.

성과급은 7개 기관에서 지급했으며 광주도시공사(1700만원), 김대중컨벤션센터(1460만원), 광주여성재단(1300만원), 도시철도공사(1190만원) 등이다.

미지급 기관장은 중간에 바뀌어 평가가 불가능하거나 지급 기준 미달, 성과급 지급 대상 제외 등의 경우라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시 기관장 연봉 수준은 그리 높지 않은 편에 속하며, 기관장 연봉은 경력, 역할과 기능, 지자체 재정여건, 다른 시도의 수준 등을 고려해 해당 부서에서 결정한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이집트 여객기 공중 납치...승객 풀어주고 망명 요구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출발해 카이로로 향하던 이집트항공 여객기가 29일(현지시간) 공중납치됐다.

이날 AP 등 외신에 따르면 승객과 승무원 81명이 탄 에어버스 A320 여객기 MS 181편이 이날 오전 출발 직후 공중에서 납치됐다고 이집트 관리들과 이 항공사 대변

인이 밝혔다.

이집트항공은 이후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 에어버스 320 여객기가 납치됐으며 승객 81명이 탑승했다고 밝혔다.

납치범은 여객기를 키프로스에 착륙시키라고 요구했으며 이후 항공기가 키프로스 라르나카 공항에 착륙했다고 키프로스

관영 RIK 방송은 보도했다.

무장한 것으로 알려진 납치범은 이 항공기에 탑승해 있는 상태라고 이 매체는 설명했다. 이 납치범은 라르나카 공항에 도착한 뒤 외국인 승객 4명과 승무원 6명을 제외한 나머지 탑승객은 대부분 풀어주고 이집트, 키프로스 당국과 협상을 벌이고

있다.

이 납치범은 통역을 통해 키프로스로 망명을 요구하고 있다고 키프로스 언론은 보도했다. 키프로스 방송 CYBC는 키프로스인 전처를 둔 납치범이 개인적 동기로 범행을 저질렀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주이집트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이집트 국내선 여객기 파편된 이후 이 비행기에 한국인 탑승 여부 등을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당신의 광장/젊음의 광장! U-square

U-square점

YONAMJA STEAK/PASTA/PIZZA/BEER

- STEAK ₩12,500~
- PASTA ₩11,900~
- PILAF ₩7,900~
- PIZZA ₩11,600~
- SALAD ₩9,900~

100% Handmade Pizza

☎062)673-7979 광주 서구 무진대로 904(광천동) 유·스퀘어, 광주종합버스터미널 2F

봄(그림)을 선물하세요

착한가격(20~90만원)으로 유명 작품 한점 소장하세요

특별한 날에 (개업, 승진, 이사, 기념일 등) 멋진 그림 한점 선물하신다면 ~

- 광주 전 지역 배달가능
- 유명 작가분 그림도 판매 합니다.

문화갤러리

Open | Am 10 ~ Pm 6시 (일요일 휴무)

010-6233-1950

★ 4성급 ★

호텔건물매매

현재 노인요양시설 허가 취득

- 엘리베이터 설치 및 리모델링공사 완료
- 목포역에서 걸어서 10분 거리 위치
- 4성급호텔, 노인병원 등 즉시 사업가능 (커미션은 휴업중)
- 주차장 및 부속상가 건물 3동

건축면적 7,091㎡ (2,149평)
토지면적 3,478㎡ (1,054평)

- 매매가격 상담 후 결정
- 현장 답사 요망

목포시 대의동 2가 1-9번지의 3필지(지상 9층 지하 1층)

연락처 061-242-7782, 010-9868-5151